



'농구 대통령'으로 불리는 허재 감독(가운데)은 두 아들 허웅(오른쪽), 허훈과 국가대표팀에서 감독-선수로 만났다. 허 감독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사진제공 | 정복표

'허-허-허' 하! 하! 하!

(허재 감독-장남 허웅-차남 허훈)

운동선수들에게 '국가대표'는 꿈이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들에게만 허락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대표를 두고 흔히 '가문의 영광'이라고 표현한다. 그런 면에서 남자농구대표팀 허재(51) 감독의 가족은 '축복받은 가문'이다. 선수 시절 '농구 대통령'으로 불리며 국가대표 불박이로 활약한 허 감독이 이어 두 아들 허웅(23·동부), 허훈(21·연세대)이 나란히 국가대표로 발탁된 것이다.

●허재 감독 "두 아들, 특별대우는 없다"

허재 감독은 5월 남자농구대표팀 전임감독으로 선임됐다. 계약기간은 3년이다. 허 감독과 대한농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9월 이란 테헤란에서 열릴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 챌린지'를 앞두고 대표선수를 선발했다. 허 감독이 직접적 세대교체를 선언한 가운데, 이번 대

농구대표팀 삼부자 '즐거운 동거'가 시작했다

9월 22일 열린 2016년 아시아 챌린지 대회에서 허재 감독은 "두 아들, 특별대우는 없다"며 허웅·허훈 "선수 책임감으로 최선"

표팀에는 그의 장남인 허웅이 포함됐다. 국가대표 감독-선수로 한술밥을 먹게 된 허재-허웅 부자에게 관심이 쏠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부상으로 대표팀 합류가 불발된 박찬희(31·전지랜드)를 대신해 허 감독의 차남인 허훈을 추가 발탁했다. 허재-허웅-허훈의 삼부자가 태극기를 가슴에 달게 됐다. 허 감독은 "말 그대로 가문의 영광이다"며 웃었다.

남자농구대표팀은 6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테니스장에 위치한 대한농구협회 회의실에서 소집된 뒤 진천선수촌으로 이동해 훈련에 돌입했다. 허 감독은 "두 아들과 국가대표 자리에서 만나게 돼 감회가 새롭다. 체육관 안에서 감독과 선수 관계다. 감독이 아버지라서 웬이나 훈이에게 특별대우를 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다른 선수들과 똑같이 대우할 것이다.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겠지만, 못하면 그에 대한선 분명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버지와 동거가 어색한 허웅-허훈

두 아들과의 만남에 텅텅 표정을 지은 허 감독과 달리 국가대표 유니폼이 처음인 허웅, 허훈은 편지 않은 기색

이 역력했다. 허웅은 "아버지와 감독-선수로 만나는 것은 상상에서만 해봤지만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다"며 웃었다. 이어 "너무 어색해서 아버지와 대표팀에 대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버지 말대로 훈련 때는 감독과 선수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허훈은 "그동안 직접적으로 아버지에게 농구를 배운 적은 없었다. 부담도 되고 기대도 된다. 아버지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자간의 만남이 어색한 것은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숙소에서 선수들끼리 흔히 하는 '감독 뒷담화'도 할 수 없게 됐다. 허웅은 "형들이 나나(허)훈이와 얘기하는 것을 어려워할 것 같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오늘의 리우 2 심각한 수질오염



리우데자네이루 과나바라만에 각종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다. 이처럼 리우를 비롯한 브라질 전역은 위생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 AP뉴시스

혁! 리우 해변 '슈퍼 박테리아' 검출

CNN "웬만한 항생제도 끄떡없어" 조경경기 열릴 호수서도 바이러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의 또 다른 화두는 '환경'이다. 특히 요트, 윈드서핑 등 주요 해상종목이 열릴 리우 해역에서 일명 '슈퍼 박테리아'가 검출돼 충격을 안겼다.

미국 보도전문채널 CNN은 6일(한국시간) 리우 주변의 5개 해변에서 어지간한 항생제에도 끄떡없는 박테리아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레나타 피카우 박사를 비롯한 브라질 해양과학자들이 1년여의 조사 끝에 박테리아를 찾아냈다. 피카우 박사는 "위험이 닥쳤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결과"라고 아버지에게 농구를 배운 적은 없었다. 부담도 되고 기대도 된다. 아버지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정환 기자 yoshike3@donga.com

양성해 전 리듬체조 대표팀 코치 무혐의

경찰·검찰, 체조협 고발 모두 무혐의의 체조인들 '체조협 '괘씸죄'에 몰린 것'

대한체조협회(회장 황태현)로부터 사기·횡령·공갈 등의 혐의로 고발된 양성해 전 리듬체조국가대표팀 코치(세종대 교수)가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복수의 체조 관계자들은 6일 "양성해 교수가 대표팀 코치로 활동했던 2010년, 국제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수 학부형들로부터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체조협회가 지난해 고소했는데,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2010년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이탈리아 피사로에서 열린 리듬체조 월드컵에 앞서 900만원 상당의 돈을 대표선수 학부모들로부터 겨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체조협회는 지난해 6월 양 교수에게 혐의를 소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협회장 명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기·횡령·공갈·배임수재' 등 체조협회가 제기한 모든 부분을 무혐의로 불기

소 처분한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지난해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처리했음을 양 교수에게 알려왔다.

이에 대한 체조인 대부분의 시각은 비교적 명확하다. 양 교수가 체조협회로부터 '괘씸죄'로 몰렸다는 것이다. 특히 양성해 전 리듬체조국가대표팀 코치(세종대 교수)가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복수의 체조 관계자들은 6일 "양성해 교수가 대표팀 코치로 활동했던 2010년, 국제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수 학부형들로부터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체조협회가 지난해 고소했는데,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체조협회의 행정 난맥상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4대국 신고선터로부터 이철 받아 조사한 수년여의 대표선발 비리 의혹뿐 아니라, 전직 체조협회 간부의 리듬체조국가대표 코치 성추행 혐의도 여론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올 5월에는 국제대회에서 팀 경기 사raz졌다. 기본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선수들을 전부 파견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남정환 기자 yoshike3@donga.com

김장미, 올림픽 마지막 리허설 5위...그래도 웃는 이유

한화회장배 사격 메달결정전 탈락 "느낌은 좋아...리우올림픽 이상무"

'한 수 배우자'는 생각이었다. 부담도 없었다. 정상급 사수들과 올림픽 사선에 설 수 있다는 마음에 설렘이 가득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2012런던올림픽 사격 여자 25m 권총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한국여자사격의 간판 김장미(24·우리은행)의 시대가 활짝 열린 순간이었다.

한화그룹과 대한사격연맹이 주최하는 2016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 2일째 경기가 펼쳐진 6일 청주종합사격장. 김장미는 여자일반부 25m 권총 결선에서 14점을 쏘 5위로 대회를 마쳤다. 8명이 도전하는 결선에 올랐지만, 1~4위가 오르는 메달 결정전에선 탈락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앞두고 치러진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점에서 아쉬움은 남지만 표정은 밝았다. 어차피 컨디션 점검을 위해 나선 대회였다. 김장미는 "괜찮다. 느낌은 좋다. (성적에) 변명할 생각이 없지만 나름 올림픽 준비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시간은 페이스 조절에 매진해야 한다. "집중력이 좋은 편이 아니다. 지금은 올림픽에 100%를 쏟고 있다. 자신감 유지가 핵심이다. 심리적 요인이 결과에 90% 이상 영향을 미친다."

4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렸다. 솔직히 우승은커녕 자신이 메달을 목에 걸 것이라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런던으로 출국하기 일주일여를 앞두고는 14점을 쏘 5위로 대회를 마쳤다. 8명이 도전하는 결선에 올랐지만, 1~4위가 오르는 메달 결정전에선 탈락했다. 한 발

씩 방아쇠를 당기다보니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이기는 맛을 느꼈다."

물론 그때 지금은 또 다르다. 1인자의 자리를 수성해야 한다. 이미 "동메달에서 은메달, 은메달에서 금메달로 목표를 높여가는 재미를 이제는 느낄 수 없다"며 1등의 고충을 호소해왔다. 리우에선 접근방식을 달리하려고 한다. "대회를 즐기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보겠다."

국내에서도 뻥뻥한 일상을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유를 즐겼다. 때로는 친구들과, 때로는 홀로 드라이브를 하며 여행을 떠난다. 당연히 리우올림픽 이후 휴가 계획도 있다. 김장미는 "국내에는 이제 마땅히 갈 곳도 없다. 해외로 떠날 생각이다. 브라질은 위험해서 행선지에서 뺐다. 예약도 다 끝냈다"며 활짝 웃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2012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장미는 6일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16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 2일째 여자일반부 25m 권총에서 5위로 경기를 마친 뒤 "올림픽에 100%를 쏟고 있다. 자신감 유지가 핵심이다"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또 한 번의 금빛사냥을 다짐했다. 정지욱 기자 kwangshin00@donga.com

'첼시 리 사태' KEB하나, 감독 빈자리 어찌나...

이환우, 김완수 코치, 감독경험 없어 새 감독 영입엔 두 코치 잔류 미지수

박종천(56) 감독이 공문서 위조 혐의가 드러난 첼시 리(27) 사건으로 사임하면서 여자프로농구 KEB하나은행은 2016~2017시즌 준비에 차질을 빚게 됐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6일 "박 감독님이 이번 일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박 감독님이 떠나게 됐지만, 훈련은 코치들을 중심으로 정상 진행되고 있다. 박 감독님이 외국인 선수 선발 등 시즌 준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감독을 선임할지 아니면, 대행체제로 다음 시즌을 준비할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 조만간 구단 고위층에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KEB하나은행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지난 시즌 성적도 모두 삭제됐고, 2016~2017시즌을 앞두고 실시된 외국인선수와 국내선수 드래프트에서 모두 각 라운드 최하위 순번으로 선발권을 행사하게 됐다. 2016~2017시즌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박 감독은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재계약했지만 첼시 리 사건으로 자리를 내

놓았다. 지난 시즌까지 함께한 신기성, 정선민 코치가 각각 신한은행 감독과 코치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환우, 김완수 코치가 새로 합류했다. 이환우, 김완수 코치 모두 여자프로농구에선 감독직을 맡은 경험이 없다. 대행체제로 한 시즌을 치르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 만약 KEB하나은행이 새 사령탑을 선임하기로 결정하면 두 코치가 팀에 남을지도 미지수다. KEB하나은행은 관계자는 "새 시즌 준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팀을 잘 추스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승 기자 gtyong@donga.com

오리온 최진수·SK 오용준, 재계약

KBL은 보수 조정을 신청했던 오리온 최진수(27)와 SK 오용준(35)이 원 소속구단과 계약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두 선수는 지난달 30일 계약 마감일에 구단과 의견 차이로 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KBL은 6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려고 했지만, 이에 앞서 두 선수 모두 당초 구단 제시액(최진수 1억9000만원·오용준1억3500만원)대로 계약했다. 이로써 남자프로농구 154명의 등록국내선수 전원이 계약을 마쳤다. 최홍승 기자 gtyong@donga.com

멜러스 덕 노비츠키, 465억에 사인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은 미국프로농구(NBA) 멜러스의 간판선수 덕 노비츠키(38·독일)가 원 소속팀과 2년간 4000만달러(약 465억원)에 재계약했다고 6일(한국시간) 보도했다. 1998년 멜러스에 입단한 노비츠키는 오직 한 팀에서만 뛰면서 2010~2011시즌 챔피언결정전 우승과 최우수선수(MVP) 수상을 동시에 이뤘다. 또 13번의 올스타, 4번의 베스트5를 수상하는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